

제 목	수박도 위험한 줄 몰랐어요.
<p>지난 3월 저희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의 필수 의무교육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모든 교직원이 신청하여 현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다.</p> <p>이론교육2시간 실습교육2시간 총4시간으로 이루어졌다.</p> <p>그룹별 심폐소생술 실습, 하임리히법 실습 등을 통해 직접 실습해 보았다.</p> <p>●심폐소생술 교육-</p> <p>성인은 어깨, 어린영아는 발바닥을 두드려 의식을 확인한다. 흔들거나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 의식이 없다면 정확한 옷의 색깔 등의 특징인을 지목하여서 신고하실 분, 제세동기 가져다주실 분 등을 지정하여 준다.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압박을 실시한다. 인형을 대상으로 실습을 하는데 딸각 소리가 날 때까 심폐소생술을 반복한다.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였다. 제대로 압박이 되지 않으면 화면에 정확히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점수표도 있었다. 타 교육기관에서 실습했던 심폐소생술보다는 정확도와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다.</p> <p>●하임리히법의 실제 적용 사례-</p> <p>올해 유난히도 덥던 여름날이 지속되었다. 수박체험활동을 준비한 우리 어린이집은 다양한 수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를 진행한 후 마무리 활동으로 영아들과 간식으로 수박을 먹고 있었다. 남남 꼭꼭 잘 씹어 먹자고 이야기하며 맛있게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영아 한명이 울기 시작하였다.</p> <p>나와 다른 교사는 무슨 일인가 하고 영아를 살펴 보았다. 처음에는 울음소리도 났지만 점점 갈수록 입을 벌리고 우는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다. 기도까지 들어갔는지 일반인인 우리가 알 수는 없었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수박이 목구멍에 정확하게 딱 끼어 있는 것이 아닌가?</p> <p>나는 당황하지 않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배운대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p> <p>영아의 양팔 사이로 영아를 끌어안고 약간 숙인자세로 엄지의 튀어나온 곳으로 영아의 명치와 배꼽 사이 중앙을 반복하여 압박해 보았다.</p> <p>나오질 않는다. 그대로 나는 영아의 한쪽다리 사이에 손과 팔을 넣어서 주먹권 양손으로 다시 반복하여 5회 실시 한 템포 쉬고 다시 압박한다.</p>	

다행히 몇 차례 반복하지 않았는데 입에 끼어 있던 수박 이물질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며 영아가 “뿌앵” 하고 울음소리를 낸다.

곁에 있던 교사는 그이물질을 확인하였고 나는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영아를 무릎위로 올려 비스듬히 엎드리게 한 후 양쪽 광대뼈를 손으로 받치고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후 한손으로 영아의 두 날개 뼈 사이를 손바닥 아래에 살짝 힘을 주어 두드렸다.

“웃차, 웃차” “우리 애기 괜찮아 ” “나온다 나온다. ” 하며 영아를 안심시키며 등을 두드리며 밀어내듯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였다.

다행히 더 이상 입에서 나오는 이물질이나 음식물은 없었다. 울고 있는 영아를 바르게 세워 안아준 후 가슴 쪽을 쓸어내리며 안심하도록 토닥토닥해주었다. 그랬더니 영아는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인다. 입속에서 나온 이물질은 바로 수박의 하얀 부분 끝 쪽에 가까운 무르지 않은 단단한 부분의 수박 이였다. 성인의 손으로 눌러도 잘 눌러지지 않는 단단한 수박의 끝 쪽 푸르스름한 부분의 경계선인 곳이었다.

어린이집 근무23년 만에 이런 위험한 상황은 또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라 정말 급 간식 제공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게 되었다.

영아는 아직 치아가 다 없고 잇몸이 대부분이다보니 수박이나 딱딱한 과일을 먹을 경우 미끄러져 영아의 목구멍이나 기도로 나도 모르게 꿀꺽하고 넘어갈수 있다. 심지어 부드러운 과일이 아닌 딱딱한 과일은 크기를 잘게 잘라서 제공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어찌다 들어간 비교적 덩어리가 크고 단단한 그 수박을 제공할 때 미처 살피지 못한 교직원과 조리사의 실수를 다시 검토하며 회의를 통해 영유아 급간식 제공시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노력해야함을 이야기 나누며 각성하였다.

3.5cm 이하의 놀잇감도 교실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며 스티커 놀이시에도 영아들이 주로 입에 넣는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 시 잘 관찰하도록 말씀드렸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하임리히법 실습교육을 만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직원은 모두 당황하였을 것이고 자칫하다가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났다. 이러한 다양한 응급처치 교육 등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실생활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의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만족도가 너무 높았다. 감사합니다.